

# “21C 도전에 경쟁 아닌 협력해야”

## 도널드 K. 스웨리 소장 중앙승가대 특강서 주장... ‘보리심’ 학술대회도 열려

“세계종교는 21세기 도전들에 대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작업해야 한다.”



영국 학자로 태국 등 상좌부불교 전문가로 유명한 도널드 K. 스웨리(Donald K. Swearer) 소장(美 하버드대 세계종교연구소장·사진)이 한국에 왔다. 스웨리 소장은 10월 22-25 고려대에서 열리는 제1회 선도&교국제학술대회에 기조강연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학술대회 일정에 앞서 도널드 K. 스웨리 소장은 22일 중앙승가대를 찾아 불교학연구원(원장 미산)이 마련한 강연회에서 특강했다.

스웨리 소장은 주제강연 ‘21세기 도전들에 대한 불교적 대응방안’에서 자신의 참여불교국제네트워크(INEB) 활동을 예로 그가 21세기의 도전이라 이름 붙인 소비주의, 환경문제, 과학기술과 종교의 관계를 설명했다.

“세계종교는 21세기 도전들에 대해 경쟁이 아닌 협력을 통해 작업해야 합니다.”

도널드 K. 스웨리 소장은 “현대의

불교 경제 윤리는 소비주의를 문화적·종교적 가치들을 빙자해 상품화한 것으로 비판한다”며 “자연의 최고 법칙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만을 취하고 사회의 이익을 위한 만큼만 축적하거나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리 소장은 “보시는 △갈애와 축적에 대한 비판을 드러내고, △부(富)를 향한 태도가 소유한 양과 나눌보다 우선된다는 것 △물질적 번영이라는 일시적 부의 가치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UN환경 프로그램 보고를 인용한 그는 “아시아의 불교도를 포함한 종교단체에 의해 고취되고 자극받은 환경운동은 세계적인 현실이 되고 있다”며 천성산 터널과 관련한 지출 스님 이야기, 태국 수탑산 케이볼카 반대운동 등을 예로 들었다.

도널드 K. 스웨리 소장은 “가난, 지구의 건강, 테러리즘, 소비주의, 환경 등은 이 시대 세계 종교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라며 “21세기 도전들에 과학 기술은 진보를 거듭하며 인간의 이해와 수용을 강요하는 과정에서도 불교를 비롯한 세계의 종교는 ‘그것들이 온전히 인간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선 21일, 중앙승가대 대학

원(대학원장 종석)은 ‘불교에 있어서 보리심의 문제’를 주제로 2009년 불교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종석 스님(사진)은 기조강연 ‘대승 불교와 보리심’에서 “보리심은 소극적이고 인도적인 불교가 전 세계인이 추구하고 갈구하는 새로운 불교로 거듭나게 한 원동력”이라고 강조했다.



근본불교 경전에는 보리심이라는 말 대신 ‘보살심(菩薩心)’, ‘보살의(菩薩意)’ 등의 단어만이 보인다. 대승불교에 이르러 교리적으로 부파 불교와 차별이 생겨나면서 <화엄경> <반야경> <대지도론> 등에 보리심이 등장한다.

종석 스님은 “보리심은 대승불교의 흥기와 더불어 탄생한 신어”라며 “아라한을 추구한 부파불교와는 달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도를 실천해 석가모니부처와 똑같은 무상정등정각을 성취하겠다는 대승 불교의 기분이념과 실천덕목을 응집해 드러내는 단어”라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묘주 스님(동국대)이 ‘보살지지경’에 나타난

보리심 고찰’을 통해 유가행파의 수행에 있어 보리심이 보살도의 구성요소로 강조됐음을 설명했다. 강준균 동아대 교수는 주제발표 ‘<무량수경>에 있어서 보리심의 전개’에서 “<무량수경>에서의 보리심은 아미타불의 대비원력에 귀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또, 권탄준 금강대 교수는 ‘화엄의 수행과 보리심’을 통해 “화엄의 보현행이야말로 보리심을 발해 현실세계에서 여래의 행을 행하는 것”이라 강조했다.

정성준 동국대 BK21연구교수는 주제발표 ‘밀교의 보리심사상 전개 고찰’에서 “밀교에서 보리심은 공성이면서 중생구호에 자유자재한 일체지지로 발현된다”며 “보리심은 만다라와 밀교를 구성하는 요소의 표출”이라고 말했다.

이외 정 교수는 “후기 밀교의 보리심은 붓다를 포함한 일체 존재의 근원이며 만유의 본성을 뜻한다”며 “속제(俗諦)의 보리심은 불교사가 보여준 시대적 상황을 반영하지만, 승의(勝義) 보리심은 석가모니부처의 연기법 이후 한걸음 같이 설해진 무상과 공성의 진리와 그 깨달음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

## 불교중앙박물관 “보관처 조계종 변경 결정됐다” 발표

1966년 불국사 석가탑에서 발견된 국립중앙박물관에 40여 년간 보관돼 왔던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가 조계종으로 반환된다.

불교중앙박물관(관장 범하)은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동산문화재과 5차 회의에서 불국사 석가탑 사리장엄구 보관처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조계종으로 변경이 결정됐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조계종은 2007년 불교중앙박물관 개관에 맞춰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을 추진했으나 국립중앙박물관(당시 관장 김홍남)이 반

환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어려움을 겪어왔다.

같은 해 4월 문화재위원회가 조사를 파견해 불교중앙박물관 시설 등을 점검했다. 5월에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가 석가탑 발견유물의 소유자가 불국사임을 확인했고, 관리주체는 문화재위원회가 재검토해 결정하기로 했다.

사리장엄구 반환은 2009년 6월 불교중앙박물관이 문화재청에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이행 협조공문을 발송하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항후 석가탑 사리장엄구 보존처리와 보고서가 완료되는 시점에 맞춰 반환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범하 스님은 “불국사 사리장엄구 반환을 결정할 것은 조계종 국내 어느 박물관에도 뒤지지 않는 전시 및 수장시설과 인력을 갖추며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면서 “문화재위원회가 석가탑 사리장엄구 반환을 결정한 것은 조계종 불교중앙박물관의 관리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개심사 목조여래상 등 5건 보물 지정

## 문화재청, 사적·명승 분류 지정작업 들어가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은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등 중요문화재 5건을 국가지정문화재(보물)로 지정했다고 10월 20일 발표했다.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瑞山 開心寺 木造 阿彌陀如來坐像)’은 고려 후기 12~13세기에 조성된 불상으로서 조각기법이 매우 정교하고 세련됐다. 특히 뚜렷하면서도 엄숙하게 표현된 이국적인 얼굴, 왼쪽 어깨에 몇 가닥의 짧은 종선으로 처리된 옷 주름과 그 아래로 자리 잡은 결구형 주름 등은 1274년에 중수된 서울 개운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나 13세기 작품으로 추정되는 화성 범방사 목조아미타불좌상, 나주 심방사 건칠아미타불좌상 등과 시대양식을 공유하면서도, 이들 상보다 훨씬 건강하고 생동감 넘치는 조각기법이어서 고려 후기 목조불상 가운데 최고(最古)의 작품일 가능성을 보여 주며, 조각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완성도 높은 불상으로 평가된다.

보물 제1620호 ‘안동 봉정사 관세음보살좌상(安東 鳳亭寺 木造 觀世音菩薩坐像)’은 1199년에 처음 대 박사가 ‘21세기 문명과 스티라카 불교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460-5226

보물 제1620호 ‘안동 봉정사 목조 관세음보살좌상(安東 鳳亭寺 木造 觀世音菩薩坐像)’은 1199년에 처음 대 박사가 ‘21세기 문명과 스티라카 불교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460-5226



보물 제1619호 서산 개심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정암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보물 제1620호 안동 봉정사 목조관세음보살좌상

정을 감입했다. 이 관음보살상은 고려 후기 새롭게 대두하는 신고전주의(新古典主義) 양식 불상의 시원적 형태를 간직한 상으로 이러한 불상 양식의 성립과 전개과정을 살펴보는 데 매우 중요한 상이다.

보물 제1621호 ‘서울 지정암 목조 비로자나불좌상(서울 地藏庵 木造 毘盧遮那佛坐像)’은 1622년(광해군 14)에 조성됐다. 광해군의 정비인 장영열후가 직접 발원해 조성한 왕실 발원 불사라는 역사적인 가치가 있고 17세기 전국에 걸쳐 활약한 대표적인 조각승들이 참여해 공동작업으로 이룩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보물 제1463-3호 ‘용비어천가 권 1·2(龍飛御天歌 卷一·二)’(서울대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책과 보물 제1463-4호

‘용비어천가 권 1·2, 권 7·8(龍飛御天歌 卷一·二, 卷七·八)’(고려대학교중앙도서관 소장)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에 앞서 문화재청(청장 이근우)은 ‘사적 및 명승’으로 지정돼 있는 ‘경주 불국사 경내’, 속리산 법주사 일원, 가야산 해인사 일원, 지리산 화엄사 일원, 조계산 송광사·선암사 일원, 대둔산 대흥사 일원 등 6개 소를 ‘사적’으로 재분류해 지정 예고했다.

문화재청 보존정책과 담당자는 “이번 지정에는 문화재보호법상 국가지정문화재 중별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사적 및 명승’에 대한 문화재적 특성을 재검토하고, 문화재 보호법상 각각의 성격에 맞추어 재분류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 서양 심리치료... 동양 명상을 만나다

동양의 명상기법과 서양의 심리치료를 통섭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명상치료학회(회장 인경)는 10월 31일 오후 1시 동국대 다학관 세미나실에서 ‘명상과 심리치료’를 주제로 제6차 가을학술포럼을 개최한다.

행사에서 임용자 대전대 교수는 주제발표 ‘NPL(신경언어프로그램)에서의 명상’에서 영상관법 등 명상기법과 NPL 심리치료를 비교할 예정이다.

박희석 원광대 교수는 ‘명상과 심리치료’를 통해 심우도를 심리학과 접목한 연구결과를 발표한다. (02)2236-5306 조동섭 기자

# “청화 스님 백도는 남자들 좌우명” 천태국제학술대회

##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서 월암 스님 주장 31일 원각불교사상연구회

“청화 스님(1923-2003)이 제시한 참수행자의 표상인 청빈(淸貧) 고절(苦節) 원융(圓融) 회통(會通)의 백도는 이 시대 남자들의 좌우명으로 여겨 사될 것이다.”

불교의 사회적 참여는 커져가지만 선지식의 부재에서 오는 정체성 혼란과 내적 갈등이 더해지는 때, 청정계율을 지키며 열불선을 수행법으로 강조했던 불자의 정신적 지주 청화 스님을 학술적으로 조명하는 자리가 열렸다.

청화사상연구회(회장 주경)는 10월 19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4회 청화사상연구회 세미나’를 개최했다.

# 천태국제학술대회 31일 원각불교사상연구회

원각불교사상연구회(원장 권기종)는 10월 31일 오전 10시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주제로 제12회 천태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행사는 담바자르 스님(몽골, 세계불교도우의회 지역센터 회장)이 ‘몽골의 불교’를 주제로 발표한다. 아웅뎡누인 미얀마 종교성 장관이 ‘21세기 문명과 불교’를, 최종석 금강대 교수가 ‘과학시대의 과학적 의불교’를 각각 주제발표한다.

난다라나 스님(스리랑카, 동국대 박사)이 ‘21세기 문명과 스티라카 불교의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02)3460-5226

조동섭 기자

# 공고 제2009-4호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기간 연장공고

2009. 3. 10 주요 일간지에 게재된 본위원회 공고 제2009-3호의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 신청공고」 중 신청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합니다.

2009. 9. 18.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위원장

### 1. 신청기간

2009. 9. 18. ~ 2010. 3. 17.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2. 신청대상

가. 10·27법난으로 인하여 사망 또는 상이를 입은 자(피해자)

#### ※ 10·27법난의 정의

“10·27법난”이라 함은 1980년 10월 계엄사령부의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이 불교계 정화를 명분으로 대한불교 조계종의 승려 및 불교 관련자를 강제로 연행·수사하고, 포고령 위반 수배자 및 불순분자를 검거한다는 구실로 군·경 합동으로 전국의 사찰 및 암자 등을 수색한 사건을 말한다.

나. 10·27법난으로 인하여 종교적 존엄성과 명예를 훼손당한 대한불교 조계종 및 10·27법난 당시 피해자가 소속된 사찰(피해종교단체)

### 3. 신청인의 자격

가. 의료지원금 지급신청: 10·27법난으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자 중 이 법 시행 당시 그 상이로 인하여 계속 치료를 요하거나 상시 개호 또는 보조장구의 사용이 필요한 자

나. 명예회복 신청: 피해자, 유족(사망시), 피해종교단체, 대리인

### 4. 신청서 접수기간

가. 신청인은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전정기념관 내 10·27법난피해자 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09:00~18:00 한 합니다), 이를 주소를 수신으로 한 우편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단, 신청기간 내에 도달해야 합니다).

나. 주소: 140-210 서울 용산구 용산동 1가 8번지 전정기념사업회 439호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 5. 신청서 제출서류

가. 피해신고및명예회복신청서 또는 피해신고및의료지원금지급신청서 각 1부(명예회복신청서와 의료지원금신청서 서식이 구별됨을 유의) 나. 피해경위서 1부(신분증 사본 포함) 다. 진단서 등 그 밖에 신청사유를 소명할 수 있는 증명 자료 각 1부

※ 대리인에 의한 경우: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위임장 1부 이면, 입원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공관의 장 등 시행령 제8조제2항이 정하는 기관의 장 또는 조계종 총무원장이 확인하는 명예회복(의료지원금)신청(수령) 위임장 1부 및 대리인이 가족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를 포함.

### 6. 의료지원금 신청기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하여 치료비, 개호비 및 보조장구구입비 등 선정

### 7. 심의·결정절차

관계법령에 따라 피해자등여부심사실무위원회, 명예회복추진실무위원회, 의료지원금판정실무위원회 등의 심의를 거쳐 10·27법난 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8. 기타 자세한 사항에 관하여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T. 02 - 748 - 5555)에 문의 바랍니다.

※ 신청서식은 조계종홈페이지(www.buddhism.or.kr) 「10·27법난피해자신청접수안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알림판 「10·27법난피해자의명예회복심의위원회 신청공고 바로가기」 등에서 내려받기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343일 조상천도 법회 봉행 안내

1. 조상 꿈을 많이 꾸는 분
2. 병명없이 몸이 자주 아픈 분
3. 부부간, 형제간 가정 불화가 많은 분
4. 집안에 우환 및 사고가 많은 가정
5. 사업이 부실하고 고통이 많은 분
6. 특히 건설업, 운수업을 하시는 분
7. 자손이 귀하거나 탈선하는 가정
8. 관재수나 손재수가 많은 분
9. 입사생, 수험생 자녀가 있는 분
10. 관직, 승진, 선거출마 예정자 등

## 귀의 삼보하옵고

불자님을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하시길 발원합니다. 저희 지정선원에서는 조상천도, 호국영령, 천재지변, 각종 사고사망, 낙태태아 등 돌아가신 영가들을 위하여 343일간 7번의 49재와 천도재 구병시식 법회를 봉행하여 유주무주고혼 애혼각 열위열명명가를 극락세계 상품상생계 할 것입니다. 특히 가정에 우환이나 근심거리가 있으신 불자님들을 위하여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을 함께 봉행합니다. 이 거룩한 법회에 무로 동참하시어 모든 영가님의 극락왕생을 발원하고, 천도공덕으로 가내 두루 평안하고 영원복락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입재법문: 현각 큰스님 동국대 선학과 교수

입재: 2009년 12월 1일(음 10.25) 사재: 2010년 6월 14일(음 5.3)  
 초재: 2010년 1월 18일(음 12.4) 오재: 2010년 8월 2일(음 6.22)  
 이재: 2010년 3월 8일(음 1.23) 육재: 2010년 9월 20일(음 8.13)  
 상재: 2010년 4월 26일(음 3.13) 회향: 2010년 11월 8일(음 10.3)

접수문의: (031) 444-5935~6 / 1588-1936 종무소

조계종 지정선원 안양불교대학  
조실 지원 / 회주 세민 / 주지 현호 / 신도회장 심정구 / 수석교문 이필상



◆기도비: 49재마다 7만원 (매 49재마다 천도재 구병시식 봉행 오후 3시 시작)  
◆불자님들의 많은 동참 부탁드립니다. 조상님의 위패를 영단에 봉안하여 기도드립니다.

